

술 마신 후에는 왜 라멘이 당길까?

“어째서 술 마신 후에는 라멘(라면)이 당길까? (중략)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해, 술을 마시면 간과 장자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당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져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혈당치가 떨어지고, 저혈당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당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맛이나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신 후에 라멘이 당기거나 많은 여성이 그러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당기는 이유는 저혈당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라멘이 과학이라면

가와구치 도모카즈 지음, 하진수 옮김

그렇다면 라멘이 이토록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사이언스뉴스'의 편집장인 가와구치 도모카즈가 라멘에 담긴 '과학 미식'을 탐구했다. 면과 국물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통해 라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책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일본 라멘에 대한 분석임을 밝힌다)

저자가 라멘에 대해 가졌던 의문은 이런 것이다. 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국물 맛이 좋아질까? 꼬들꼬들한 면과 폭 삶은 면 가운데 어느 쪽이 국물과 맞는지, 술을 마시면 왜 라멘이 당기는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근본적으로 '라멘은 왜 맛 있는가'로 수렴된다.

저자는 답을 구하기 위해 유명 라멘 가게와 라멘 박물관을 방문해 맛을 보았다.



면·국물에 숨은 과학적 원리 파헤치는 라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독자들 지적 호기심 채워주는 미식 탐구서

라멘 제조기술·일본 '면치기' 문화까지 속속히 들여다보기

제조 회사와 제면 회사도 찾아가 직접 만들어 보았다. 또한 수십 년 경력의 식당 사장, 영양사, 연구원, 칼럼니스트 등 각계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저자는 국물 맛을 결정하는 제5의 감각, 감칠맛의 비밀에서 찾는다. 푸짐한 라멘 한 그릇이 놓였을 때 면부터 먹는 이도 있지만 국물부터 맛보는 이도 적지 않다. 라멘은 국물 맛이 생명이다.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최대한의 감칠맛을 내는 것”이 포인트다.

“단맛은 에너지원이 되므로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신맛은 상한 음식일지 모르고 쓴맛은 독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신맛이나 쓴맛을 싫어하죠. 감칠맛은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단맛과 감칠맛을 기본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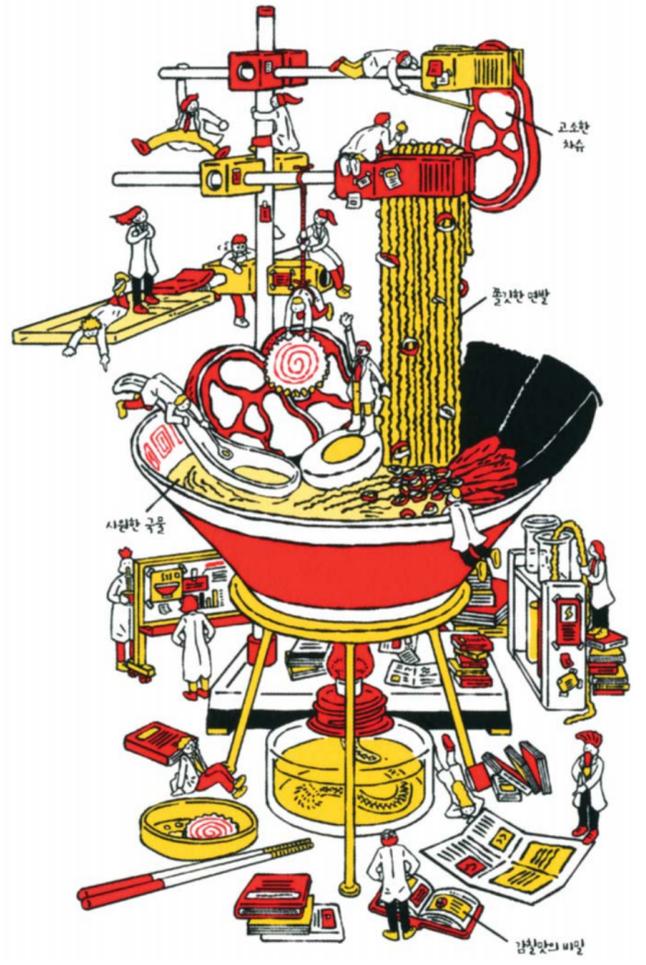
면발은 반죽과 숙성 정도, 제면 방식에 따라 식감, 색깔이 달라진다. 심지어 향까지 달라진다. 익힌 정도에 따라 꼬들꼬들한 면을 선호하기도 하고 익힌 면을 좋아하기도 한다. 대부분 꼬들꼬들한 면이 국물이 잘 밸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저자는 “유체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곧은 면이 꼬들꼬들한 면보다 국물을

더 잘 흡수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면이 국물을 흡수하는 정도는 면발의 꼬들거림, 반죽 재료 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면을 얼마나 익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1분 동안 삶아야 하는 면을 30초만 덜 익히면, 그 면은 국물을 깊이 빨아들인다. 대신 면에 함유돼 있는 간사이(탄산 칼륨이나 탄산나트륨이 주 원료)나 첨가물이 국물에 녹아 나온다. 달리 말하면 꼬들꼬들한 면에 국물이 잘 배어 있을지 몰라도 국물 맛은 첨가물에 의해 변질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후루룩거리며 먹는 라멘이 맛있을까?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돼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을 비매너라고 생각한다. 젓가락이나 포크에 맡아 먹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면을 먹을 때 ‘면치기’를 한다. 면을 입에 넣은 뒤 빨아들이듯 먹는 방법을 면치기라 하는데 ‘즈루즈루’라는 소리로 표현한다. 한국의 ‘후루룩’과 같은 의미다.

〈부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

놈 촘스키 지음, 강주현 옮김

놈 촘스키를 수식하는 말은 다양하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철학자, 인지 과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 그를 가리켜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글렌 그린월드는 “현재 살아 있는 정치 평론가로 촘스키만큼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쟁점에 대해 많은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바꿔 놓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촘스키는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촘스키가 이번에 펴낸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 낼 수 있을까’는 전쟁, 종교, 테러,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 지난 1969년부터 2013년까지 학회와 대학교 강연, 각종 언론 매체에 기고한 시론을 한데 묶었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인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갖춰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촘스키는 오늘을 사는 지식인들에게 책임과 용기를 가지라고 조언한다. 지식인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에 매진하고 비합리적 사회 구조에 맞서 법률의 식과 도덕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근본적이고 지배적인 도덕률로서 ‘보편성 원칙’을 강조한다. 보편성 원칙에 따르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정확히 같은 것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명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견뎌 낼 수 있을까
Noam Chomsky

저자는 답을 구하기 위해 유명 라멘 가게와 라멘 박물관을 방문해 맛을 보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의 향기가 향기의 소리로

최 건 지음

광주일보 신춘문예(옛 전남일보 1964년) 출신 최건 시인이 10번째 시집 ‘소리의 향기가 향기의 소리로’를 펴냈다.

순천 출신의 시인은 1980년 동아일보 목포 주재기자를 하며 당시 목포 일원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와 투쟁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취재 수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11. 5. 25) 돼 5·18기 록관에 보관돼 있다. 당시 자신의 취재과정을 지켜보며 상황을 기록한 ‘아내의 일기’도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최 시인은 이번 시집에는 ‘남 몰래 흘리는 눈물’로 라는 연작시 25편 외에 7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작품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과 서정이 녹아 있어 읽는 이에게 잔잔한 울림을 준다. 80세 노인이 눈물의 파편을 일컬어 ‘눈물가루’라고 표현한 것은 내면에 드리워진 순수함의 힘이다.

“따론 묘약이어요/ 이때만이/ 치유의 은사(恩賜)여요/(중략)/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미동의 흐느낌/ 바수와 또 바수나/ 애오라지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합성의 술 없는/ 함성 한결 또렷해요/ 눈물방울 이슬가루 더욱 빛나요.”

위 시 ‘남 몰래 흘리는 눈물·III’은 시인의 여러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그의 내면에는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소년이 존재한다. 순수한 소년의 눈과 그에 맞는 언어는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내면의 조흔금 수필가는 “그의 시는 깊다. 천길 만길 물 속 같은 심연의 깊이에 빠져 혼자 슬프고, 혼자 괴로우며, 혼자 절망하고, 혼자 부정한다. 그가 깊이에 반비례한 넓은 호흡과 공유했더라면 아마 온 천하를 품어 주유천하 하다고 남았으리라”고 평한다.



〈문경출판사·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리스 신화

스티븐 프라이 지음, 이영아 옮김

세상에 그리스 신화만큼 사랑받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로마뿐 아니라 유럽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져 문화·예술 곳곳에 스며들었고, 곧 유럽 문화에 유전인자처럼 깊숙이 박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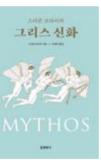
그리스 신화의 영향력은 비단 문학·예술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곳곳에 숨어들었다. 대표적으로 태양계 행성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 신들의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예컨대 금성(Venus), 화성(Mars), 목성(Jupiter) 등이 그렇다.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섞여든 이 불멸의 고전은 하나의 고정된 정점이 있지 않은 터라 수많은 작가들의 펜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윤기 버전으로, 젊은 세대에게만 문화 버전으로 익히 접해왔다. 하지만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미 출간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최고의 재담꾼 스티븐 프라이가 ‘그리스 신화’를 펴냈다. 저자는 영국의 유명 배우이자 코미디언, 극작가, 영화 감독 등을 거친,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할 만한 박식함과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녀 오스카 와일드에 자주 비유된다. 저자의 재치있는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만드는 매력에 있다.

그리스 신화를 처음 접하는 이도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1~2장에서 올림포스 12신이 갖춰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3~4장에서 다채로운 그리스 신들의 해프닝들을 다룬다. 또한 그리스 신들을 주제로 한 34점의 도판도 실려 있어 볼거리를 준다.

〈현암사·1만95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역사의 아픔 기억하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아플수록 바라보자, 역사의 통증
5·18은 살아있다, 몸으로 배우는 역사
기억의 예술관, 베를린

5월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과 ‘라 마르세예즈’ 지역 교사들이 펴낸 5·18이야기

해외문화 현장③
편안한 ‘만인의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② 소소해서 더 예쁜 문화 공간들 담양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④
김지영씨, ‘나에게 걸어가는’ 생활여행자 “고무대야에 누워 별 보던 추억이 반짝여요”

특집
역사의 아픔 기억하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아플수록 바라보자, 역사의 통증
5·18은 살아있다, 몸으로 배우는 역사
기억의 예술관, 베를린

5월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과 ‘라 마르세예즈’ 지역 교사들이 펴낸 5·18이야기

해외문화 현장③
편안한 ‘만인의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② 소소해서 더 예쁜 문화 공간들 담양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④
김지영씨, ‘나에게 걸어가는’ 생활여행자 “고무대야에 누워 별 보던 추억이 반짝여요”

예향 초대석
한국형질문화원 원장 조용진
한국인 얼굴 연구 40년 ‘얼굴학자’

문량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⑩
한국 근대 풍자문학 대표작가 **군산 채만식문학관**

화제의 전시
남도미술 뿌리Root &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강재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④
교막·석화 유명한 **장도 인생 굴 요리 ‘피굴’**

지역 축제
5월엔 가족과 함께 더 즐거운 축제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용미술관 <맞이한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전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④
인성교육 부재 **아이돌 육성 시스템**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필승맨, 고졸 2년차 투수 하준영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⑤
존 포드 VS. 하워드 호커 서부개척시대 미국을 그린 영화 거장

다미의 꿈 생애미리 여름 휴가철 축제장으로 나온 항공박쥐 생명 배우는 생애미리 명소